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 01 간호부 미션&비전 공유식 및 2016년 장기근속상 수여식

간호부는 지난 9월 28일 4층 중강당에서 간호부 미션&비전 공유식 및 2016년 장기근속상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병원의 '비전 2020' 선포에 발맞춰 성장하는 간호부가 되기 위해 새롭게 선정된 간호부 미션 '자비를 바탕으로 최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정하고 비전과 함께 공유했다.

간호부 미션과 비전은 간호 관리자 워크숍 TFT에서 내용을 선정, 검토 후 전체 간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선정됐다. 또한, 간호사 67명에게는 2016년 장기근속상을 수여했으며 다과 시간을 통해 10년 장기근속상 수여를 축하하고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 공다현 간호부장은 "1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 하며 병원 발전에 기여해주어서 감사하다. 그동안의 시간들을 발판으로 삼아 더 전문적으로 발전하는 간호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02 10대 사망원인인 '뇌졸중'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강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류위선 교수는 지난 10월 5일 높은 사망원인 중 하나인 뇌졸중 예방을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류 교수는 강좌를 통해 뇌졸중은 우리나라 한 해 1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5분마다 뇌졸중 환자 발생, 20분마다 한 명씩 사망하는 원인이 되는 위험한 질환임을 설명했다. 특히,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 복부비만, 흡연, 심장병, 당뇨병 등 기초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뇌졸중 예방관리로 평소 혈압체크를 자주 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혈압 강하 효과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으로 체중관리, 식생활개선, 저 염식, 운동관리 등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강좌는 뇌졸중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리로 행복한 노년을 맞이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 03 1004가 1004를 찾아갑니다.

간호부는 10월 4일 간호사의 날인 '1004 DAY'를 맞아 "1004가 1004를 찾아갑니다."라는 주제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조원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날 간호부장과 간호팀장은 직접 간호부 부서원들을 방문하여 주먹밥과 샌드위치, 음료를 나누어 주며 일과에 지친 간호사들을 격려하는 이벤트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바쁜 근무 시간 중에도 간호사들은 아침식사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힘찬 하루를 응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병동의 한 간호사는 "아침 일찍 출근하느라 아침식사를 못했는데, 이렇게 주먹밥과 음료수를 주셔서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내년 1004 DAY에도 매우 기대가 된다."라고 전해 큰 웃음을 주었다.

한편, 간호부는 매년 1004 DAY에 건강관련 주제로 내원객들에게 다양한 봉사과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해 왔다.



#### 04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개원 11주년 기념 특식

지난 9월 27일 개원 11주년을 맞이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영양팀에서 준비한 개원기념 특식이벤트로 교직원들과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병원지원을 받아 실시된 이번 중식이벤트는 직화로 구워 풍미를 더한 함박스테이크 정식과, 바삭바삭하게 튀긴 푸짐한 닭다리를 제공해 직원들은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영양팀은 앞으로도 교직원들의 즐거운 식사시간을 위한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알 리 미

##### 원내 건강강좌

- 주제: 치매 | 강사: 신경과 김광기 교수, 한방신경정신과 구병수 교수  
일시: 10월 11일(화) 14시 | 장소: 본원 5층 대강당
- 주제: 파킨슨병 | 강사: 신경과 박정미 교수  
일시: 10월 11일(화) 15시 20분 | 장소: 본원 5층 대강당

##### 한방병원 독거노인을 위한 방문무료진료

일시: 10월 11일(화), 10월 13일(목) 9시 ~12시 | 장소: 풍동지역

#### 고객의 소리

다시 찾은 새로운 삶!

얼마 전 저녁식사 중 다급한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시아버님이 쓰러지셔서 동국대일산병원 응급실에 계신다고요. 평소 심장질환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갑자기 극심한 심장 통증으로 응급실로 가게 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님이 잘못되시는 줄 알고 가슴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응급실의 신속한 대처와 심장혈관내과 이무용 교수님과 박종현 선생님의 응급시술로 위험한 고비를 잘 넘기셨습니다. 시술도 잘 되었고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후로 아버님은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되찾았습니다. 환자를 꼼꼼하게 살피시고 진심으로 걱정해주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이무용 교수님과 박종현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선생님들 덕분에 동국대일산병원은 신뢰를 갖고 찾을 수 있는 병원임을 가슴속 깊이 새겨봅니다.